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 7-11)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7-11

아버지가 꼬맹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어린 아들의 몸을 구석구석 세심하게 닦아 줍니다. 아이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아프다고 싫은 소리를 냅니다. 아이목욕을 마친 뒤에야 아버지는 비로소 자기 몸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빠 손에서 해방되기만을 기다렸던 아이는 즉시 목욕탕 안을 자기만의 놀이 공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뚝단배처럼 작은 바가지를 온탕의 물 위에 띄어놓고 침범거리며 좋아라 합니다. 그러던 꼬마가 다시 아빠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빠의 등을 닦아 주겠다고 합니다. 비누거품을 대충 발라놓는 엉성한 손놀림이지만 그 모양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제법 신통하구나’ 했는데 웬걸, 그러다 말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사이 아빠는 이미 비눗물을 다 씻어냈는데, 뒤늦게 다가온 녀석이 고집을 피웁니다. 제 손으로 샤워기를 들고 아빠 등에 뿌리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 저기 뿌려대며 신이 났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어저씨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헛기침을 해 냅니다. 아빠는 짐짓 무서운 얼굴을 꾸미며 아이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주위의 어저씨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는 얼굴로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모습도 닦지 않았을까요? 고사리 손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몸을 개운하게 닦아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엉성한 비눗칠, 때를 미는 손길이 하나마나 일지 모릅니다. 때론 아버지의 시야를 벗어나 멀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닐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고사리 손의 애씀이 마냥 사랑스러워 기뻐할 겁니다. 별것 아닌 모습에도 “이 녀석이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고 그 작은 일에서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낀다며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철부지 자식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말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그저 이 한마디를 전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더러 회개의 상징인 요한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고 그 삶을 시작하는 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니요?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스캔들인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의 하느님이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이다. 이제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 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돌려놓고자 한다. 애들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주겠니? 너희의 입술이 아버지인 나를 부를 때, 나는 너희가 고맙고 사랑스러워 눈물이 난단다.”

이렇듯 우리 모두 하느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수원교구 2009년 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판관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신앙상식

판관기

저자

원래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민담이나 설화가 신명기계 전승자들에 의해 한데 모아진 후 (기원전9세기경)유배 시기 동안에 다른 사료들과 합쳐져 현재의 판관기가 되었습니다.

시대 배경

가나안 정착 후부터 왕국 설립 전까지 약 2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목적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된 후 우상숭배에 빠져든 이스라엘은 그 벌로 이민족의 침략과 수탈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판관을 세워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 하느님은 모든 면에서 참다운 신으로 섬길 때에 적들의 침략과 억압이 사라지고 평온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지도자가 없는 시기에, 하느님께서 판관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해 내십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땅을 정복해 가는 판관들에 관한 설화들 단 성소의 기원과 부족 간의 전투 이야기 등이 나옵니다.

공지사항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성경말씀

마르 1,40-45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그러자 비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 예수님께서서는 버려진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고통을 느끼십니다. 나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저서 원 정 수
적곡 현 정 수

기도하며...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 아

중 - 기 하 고 봉 사하 자 세 상 모 두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 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